

극작가 겸 배우로 활동하는 유학생 **남유림씨**

첫 단편 작품 '28+2' 로 관객들과 호흡
시나리오부터 주인공 역할까지 소화
9월에는 두 번째 작품 '시계' 무대에

“훗날 브로드웨이 꿈나무들의 창작·연기 활동을 지원하는 멋진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20대 꿈 많은 한인 남유림(29)씨가 뉴욕에서 극작가 겸 연극 배우로 데뷔했다.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학과를 졸업하고 3년 전 뉴욕에 온 남씨는 뉴욕의 단편 연극제인 '2018 원 액트 페스티벌(One Act Festival)'에 생애 첫 단편 작품인 '28+2'를 출품, 주인공 역할까지 소화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무대에 올라온 48개 작품 가운데 하나인 그의 작품은 최종 14개 작품을 선정하는 결승 진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질 정도로 내용과 연기에서 호평 받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더 시크릿'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남씨는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내용을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의미가 크다”며 “무대에서 내가 직접 쓴 작품을 몸소 연기하는 경험은 설레고도 짜릿하다”고 말했다.

남씨가 출품한 '28+2'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에서 밀레니엄 세대가 어떻게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뤄 살아가는 가를 조명한 작품이다. 서울에서 온 주인공 여성이 새해 첫날 한국 나이로 30세가 되지만 타민족 친구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작품은 앞선 6월 맨해튼의 '레퍼토리' 극장에서 쇼케이스로 2회 공연되며 연극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남씨는 “뉴욕에 내재된 다양성의 단면을 보여주며 젊은 세대의

고충과 아픔, 우정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아무래도 제가 겪은 경험 중심으로 전개하다 보니 진솔함이 묻어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이번 무대에서 희망을 얻은 그의 최종 목표는 뉴욕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 진출하는 것이다. 남들보다 늦은 시기에 브로드웨이 배우의 꿈과 열정을 갖고 왔지만 다양한 무대에서 경력을 쌓으며 실력을 연마하고 싶다고. 실제로 그는 뉴욕에서 단편 코미디 영화 '더 밉글(The Mingle)'에도 출연했다. 타이 쿠퍼 감독의 이 영화는 칸·선댄스·부산국제영화제 등 출품된 작품으로 남씨는 주인공 남성이 소개팅을 하는 네 명의 여성 중 한 명인 '세레나' 역할을 맡았다.

현재 남씨는 오는 9월 연극 공연 준비로도 분주하다. 뮤지컬·장편·단편 부문으로 경쟁하는 '뉴욕 여름페스트 시어터 페스티벌(newyorktheaterfestival.com/a-watch)'에서 새 단편 극작품 '시계(A WATCH)'로 9월 20·21·23일 3차례 공연하는 그는



25일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에서 만난 20대 한인 극작가 겸 배우 남유림씨가 첫 작품을 설명하며 밝게 웃고 있다.

“뉴욕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그렸다”며 “꼭 수상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남씨는 “직접 쓴 시나리오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셰익스피어 연극과 같은 훌륭한 작품을 아시안

의 시각으로 재탄생시켜 무대에 올리고 싶다”며 “또 타민족 친구들과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장르 개척에도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브로드웨이 진출의 꿈을 키우는 배우나 연출자, 극작가를 위한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남씨는 “공연 연습을 하는 동안 리허설 공간 대어나 각종 페스티벌 참가비 마련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부딪혔다”며 “이 분야에 자리잡게 된다면 재능 있는 이들과 좋은 작품들이 최대한 많이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남씨는 2015년 뉴욕 유학길에 올라 '스텔라 애들러 스튜디오 오브 액팅(Stella Adler Studio of Acting)'에서 여름 집중 연기 과정을 마치고 HB 스튜디오에서 3년간 연기 및 극작 공부를 하고 있다.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졸업 후엔 대학로 소극장에서 활동했으며 연기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글·사진=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한국화 독창적 장르 개척 '온 힘'



Translation of Newspaper Article

Nam Youlim, an international student who plays as a playwright and an actress

Her first short play '28 +2' with the cheers from the audience
From scenario to the lead character role
In September, the second play 'A Watch' on stage

(Youlim's portrait - right)

The 20-year-old Korean playwright and actress Nam Youlim, whom I met in Koreatown (32nd street in Manhattan) on 25th, explains her first work as laughing brightly.

"I want to be a wonderful senior who will support the creative and acting work for Broadway's future actors and playwrights."

A young Korean, but significant potential, Nam Youlim (29) made her debut as a playwright and an actress in New York. Nam, who graduated from Dongduk Women's University and majored in Broadcasting and Entertainment, came to New York three years ago and showed her first short play '28 +2' at the '2018 One-Act Festival' playing the main character. Her work, one of the 48 works on the stage after fierce competition, was acclaimed for its contents and the character's performance,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entering the final to select the best eight works.

"I think it's meaningful that I wrote what I wanted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in English, not in my mother tongue," says Nam, who has been meeting audiences at the Secret Theater in Long Island City, Queens since the 11th. "The experience of acting that I wrote is thrilling and exciting."

'28 +2' presented by Nam explains how millennial generations in New York, where various races and cultures coexist, overcome cultural differences and conflicts and live in harmony. The main character from Seoul becomes 30 years old in Korean age on New Year Eve, but her friend from another country does not understand the Korean age calculation method, from which the story starts. This play was also recognized as the sensation in the theatrical world as it was performed twice as a showcase at the Manhattan Repertory Theatre in June.

"I wanted to show the cross-section of diversity inherent in New York, agony, pain, and friendship of young generation in various ways," says Nam. "I was able to show something genuine because it was all stemmed from my experience, I think."

The ultimate goal of Nam who was encouraged by this stage is to appear on Broadway. She came to this city with the dream of being a Broadway actress later than others, but she wants to build her career experiencing various stages. She also acted in the short comedy film The Mingle in New York. The film, directed by Ty Cooper, has been submitted to the Cannes,